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2011년에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무용단의 연말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

광주시립예술단체 올해 공연 217회

새해를 맞아 무용단 등 6개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올 한해 공연 계획 등을 확정했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올 한해 정기공연(36회)을 비롯해 모두 217회 공연을 진행하며 해외공연도 추진중이다.

문예회관 20주년 기념 '성웅 이순신' 무대에

국극단 '임방울의 쑥대머리' '토끼전' 정기공연
지역 작곡가 음악회… '완득이' 소재 합창 무대

▲국극단·관현악단 5월 합동무대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는 무용단(단장 김유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은 광주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작으로 올리는 발레 '성웅 이순신'이다. 초대 단장인 박금자씨가 지난 1992년 처음 무대에 올렸던 작품으로 10월께 대대적인 개작 과정을 거쳐 선보일 예정이다.

정기공연 작품으로는 '실비아'와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하며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을 테마로 한 동명의 작품을 초연할 예정이다. 무용단은 올 가을 다시 중국 무대에 오르며 항주에서 활동하는 무용단체가 교류 차원에서 5월께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35년 무용단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무용단은 지금까지 무대에 올렸던 작품과 사진 등을 담은 기념책자도 발간한다.

올해 윤진철씨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한 국극단이 올해 정기공연에 선보이는 작품은 창극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토끼전'이다.

취임 인터뷰 당시 국극단이 무대에 올렸던 기존 작품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력 있는 작품은 레퍼토리화 하겠다고 밝혔던 윤감독은 국악계의 여론을 청취, 광주 출신 소리꾼인 임방울의 일생을 그린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선택했다.

하반기에는 창극 '토끼전'을 초연한다. 올해가 토끼해인데다 '수궁가'는 현대적인 내용을 가미, 해학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풍자하며 전통과 창작을 잘 버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른 작품이다.

▲공연 CD 제작, 해외공연

오는 3월께 빛고을시민문화관 옆 옛 수궁갈비 자리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로 이사하는 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은 올해 '아리랑'과 민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위촉해 '코리아 환상곡'이라는 타이틀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또 7월에는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음악만으로 음악회를 준비중이며 지난해 공연실황중 '춘산에 붙는 불이', '5월 광주-이땅에 살으리라', '빛빛빛 빛이되라 하시네' 등을 CD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립국극단과 국악관현악단은 5·18을 주제로 한 합동 공연도 추진중이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이어진 단장은 올해 우리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열리는 정기공연에서는 오랜 세월 불려온 우리 전래 동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소극장에서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합창단은 올해는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를 소재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공연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또 전라도 지방의 민요 '까투리 타령'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까투리! 까투리'를 광주문예회관 2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려, 대표 문화상품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12월에 열리는 올 마지막 무대는 우리 전통과 퓨전 요소를 혼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합창단(단장 구천)이 상반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은 4월에 무대에 올리는 '코지 판 투테'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합창대제전과 대구의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외부활동도 꾸준히 진행한다.

관현악단은 2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구자범 지휘자가 3차례 공연을 갖는다. 구지휘자는 28일 슈만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하며 2월 18일에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연주된다. 14일 광주소년원에서 찾아가는 연주회도 열린다.

현재 문예회관측은 지휘자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임 지휘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본사 신춘문예 작가들의 이야기
열네번째 '금남로 가는 길'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이 나왔다.

광주일보신춘문학회(회장 윤삼현)가 올해로 14번째 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제6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수행(49)씨의 시 '有情浦口'와 심사평, 수상소감 등이 실렸다.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씨가 응모한 시에 대해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 만한 시"라며 "시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육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집을 구축해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는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작품집에는 이와함께 노창수씨 등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26명의 시(24편), 동시(9편), 동화(5편), 소설(8편), 희곡(1편) 등 최신작 47편을 담았다.

시 부문 작품으로는 박문재씨의 '만개한 꽃'과 송현승의 '누수'를 비롯해 정을식씨의 '엑스트라', 최정웅씨의 '만재도' 등이 실렸다.

소설 부문에는 문학상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섬세한 디테일과 탄력있는 문장"이라는 평을 받은 차노휘씨의 '승강기', 김후량씨의 '등나무 흔들의자', 이원화씨의 '그곳이 어딘지' 등의 작품이 수록됐다.

또한 지난해 신춘문예 당선돼 신입회원이 된 정보고(소설 부문), 이슬(시 부문), 이영아(동화 부문)씨의 수상작 '시작점, 0', '오르골', '보리와 밀에게'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수상소감 등도 함께 올렸다.

윤삼현 회장은 "문학의 길은 고달프고 험난하며, 때론 자존심 높은 작가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현실일 수도 있지만 지치지말고 충심을 담아 창작활동에 전념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는 오는 17일 오후 4시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제6회 광주일보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전일출판·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려한 색의 숲 영산포의 풍경

13일부터 드로잉회원전

광주 갤러리 D는 오는 13~19일 드로잉회(회장 김용근)의 제25회 정기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성희·김성우·김숙희·박성자·박종숙·서민식·신경화·오지아·오영란 등이 참여한다.

강성희씨는 화려한 색으로 숲을 화폭에 담았고, 한경수씨는 영산포의 풍경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을 전시한다.

강성희 작 '가을의 향연'

한편 지난 1985년 창립된 드로잉회는 매년 한차례씩 정기회원전을 갖고 있으며 야외스케치, 세미나 등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3일 창립축하 공연·전시

최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3일 오후 3시 빛고을문화관에서 창립 축하 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다.

'광주의 꿈, 문화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한 축하공연은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의 사회로 시립국극단의 창작 판소리 공연, 박선욱돋움무용단의 현대무용 공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등 흥겨운 무대로 꾸며진다.

비보이팀 '빅사이즈'의 역동적인 춤 공연과 '얼쑤'의 흥겨운 국악무대도 마련된다.

또 광주의 대중가요 역사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 광주의 소리' 전도 13~20일 빛고을문화관에서 이날 개막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장순〈사진〉·김원중·박문옥씨 등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의 애환을 달래온 통기타 가수들의 다양한 자료와 사진 등을 선보인다.

또 전시장에서는 참여 가수 음반 듣기, 무료 노래방 등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이 밖에 미디어아트 '다섯개의 빛' 등 관련 전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